

Session 4 David and Goliath: Overcoming Giants (1 Sam. 17) **제 4 장 다윗과 골리앗: 거인을 이기다 (삼상 17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is passage, we see David as bold and courageous, pursuing and driving out God’s enemies. In David’s generation, the Philistines were one of the most advanced armies in the world because they were one of the first nations to use iron and thus to develop iron weapons. This gave them a great advantage in battle over Israel. Goliath, their champion, was unstoppable by human means.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용맹하게 하나님의 대적에게 나아가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된다.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첫 번째로 사용한 나라 중 하나였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에 그 당시 가장 진보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들에게 큰 이점이었다. 블레셋의 전사였던 골리앗은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 B. A national military crisis erupted against Israel that was beyond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he outcome determined their future, as the issue at stake was the slavery and destruction of Israel.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앞에 놓였다.

- C. This account of Goliath is often spiritually applied to any attack against us that requires more than human ability to triumph. Only by God’s power would Israel be able to triumph.

골리앗은 종종 우리를 향한 공격 중,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종종 영적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II. THE CONFLICT WITH GOLIATH INTRODUCED (1 SAM. 17:1-11) 골리앗과의 충돌 (삼상 17:1-11)

- A. The Philistines invaded Judah at Sochoh (17:1-3).

블레셋은 소고에 모여 유다를 침략했다 (17:1-3).

¹*The Philistines gathered their armies together to battle, and were gathered together at Sochoh...*

²*Saul and the men of Israel were gathered...in the Valley of Elah [14 miles SW of Jerusalem], and drew up in battle array against the Philistines.* ³*The Philistines stood on a mountain on one side, and Israel stood on a mountain on the other side, with a valley between them. (1 Sam. 17:1-3)*

¹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 ²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 [예루살렘 남서쪽 22km]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³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삼상 17:1-3)

- B. Goliath, the Philistine champion and giant, is described (17:4-7).

폴리앗, 블레셋의 전사이자 거인 (17:4-7)

⁴A **champion** went out from the camp of the Philistines, named **Goliath**, from Gath, whose height was six cubits and a span [nearly 10 feet]. ⁵He had a **bronze helmet...a coat of mail** and the weight...was five thousand **shekels of bronze** [125 pounds]. ⁶He had...a **bronze javelin** ⁷...his iron spearhead weighed six hundred shekels [15 pounds]... (1 Sam. 17:4-7)

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 [한글 KJV: 투사]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폴리앗 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 [거의 3m 에 가까움] 이요 ⁵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 [55kg] 이며 ⁶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 ⁷ 그 창 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 [6.5kg] 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삼상 17:4-7)

1. Goliath had the most advanced weapons of his day (a helmet, coat of mail, shield, sword, spear, and javelin with a wooden shaft as thick as a beam from a weaver's large loom).

폴리앗은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헬멧, 비늘 갑옷, 방패, 창, 단창, 정강이 덮개, 베틀 채 같이 두꺼운 창 자루).

2. These giants were the sons of Anak (Num. 13:32-33). Joshua killed them all, except for the giants who lived in the cities around Gath. So 500 years later, David is still dealing with them.

이 거인들은 아낙 자손이었다 (민 13:32-33). 여호수아는 가드 주변 도시에 살던 거인을 제외한 모든 아낙 자손을 죽였다. 그리고 500 년이 지난 이후, 다윗은 가드에 남은 이들과 마주하고 있다.

²¹Joshua came and cut off the Anakim...²²None of the Anakim were left in the land of the children of Israel; **they remained only in Gaza, in Gath, and in Ashdod.** (Josh. 11:21-22)

²¹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 ²²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수 11:21-22)

- C. Goliath defied Israel, causing many to be overcome with fear, despair, and hopelessness (17:8-11). Goliath accused them, "Why have you even come to battle? You know you are going to lose."

폴리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많은 이들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했다 (17:8-11). 폴리앗은 그들을 조롱했다, "너희가 무엇을 하러 전쟁에 나왔느냐? 너희가 질 것을 뻔히 알지 않느냐?"

⁸He stood and cried out to the armies of Israel..., "Why have you come out to line up for battle?... Choose a man...⁹If he is able to fight with me and kill me, then we will be your servants. But if I prevail against him and kill him, then you shall be our servants..."¹⁰And the Philistine said, "I defy the armies of Israel this day; give me a man, that we may fight together."¹¹When Saul and all Israel heard these words of the Philistine, they were dismayed and greatly afraid. (1 Sam. 17:8-11)

⁸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⁹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¹⁰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¹¹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삼상 17:8-11)

III. DAVID ACCEPTED GOLIATH'S CHALLENGE (1 SAM. 17:12-39)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임 (삼상 17:12-39)

A. Jesse sent David to the Valley of Elah (17:12-23).

이새는 다윗을 엘라 골짜기로 보냈다 (17:12-23).

¹⁵David occasionally went and returned from Saul to feed his father's sheep at Bethlehem. ¹⁶And the Philistine drew near and presented himself forty days, morning and evening. ¹⁷Then Jesse said to his son David, "Take now for your brothers an ephah [half a bushel] of this dried grain and these ten loaves, and run to your brothers at the camp [about 7 miles from Bethlehem]..." ²²David...greeted his brothers. ²³Then as he talked with them...the Philistine of Gath, Goliath by name...spoke according to the same words. So David heard them. (1 Sam. 17:12-23)

¹⁵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¹⁶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¹⁷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볍은 곡식 한 에바[15 리터 정도]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베들레헴에서 11km 정도] ... ²² 다윗이 ...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²³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돌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삼상 17:12-23)

B. God sent David so that he was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o hear Goliath's challenge.

하나님은 다윗을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보내셔서 골리앗이 도전하는 것을 들도록 하셨다.

C. David had been anointed by the prophet Samuel and worked in the king's court, yet is described as running errands and tending sheep. He served the king one day and ran errands the next day.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궁정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심부름을 하며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하루는 왕을 섬기고, 또 하루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²⁰David rose early in the morning, left the sheep with a keeper, and took the things and went as Jesse had commanded him. And he came to the camp... ²²David left his supplies in the hand of the supply keeper, ran to the army, and came and greeted his brothers. (1 Sam. 17:20-22)

²⁰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 ²²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삼상 17:20-22)

1. David gained prominence, yet without losing a servant heart. This gave a practical expression to his intimacy with God.

다윗은 유명해졌지만, 종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가진 친밀함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2. David was faithful with responsibilities, as he left the sheep with a keeper and the supplies in the right hands (17:20, 22). He did not neglect his mundane responsibilities. The Holy Spirit recorded David's integrity and faithfulness in menial tasks in context to his national victory.

다윗은 맡은 책임에 대해 충성되게 섬겼다. 그는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가지고 간 짐을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두었다 (17:20, 22).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성령님께서서는 다윗이 국가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건 가운데에도 그가 하찮은 일에도 진실하며 충성되었던 것을 기록해두셨다.

3. From the king's court, David returned to the sheepfold—his exalted position did not ruin him for humble service!

다윗은 왕의 궁정에서 양을 치는 들판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리가 높아졌지만 겸손한 섬김을 계속해 나갔다!

- D. The army of Israel saw *only* the giant, thus were filled with fear (17:24-25). The picture here is of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operating in the arm of the flesh, and thus are terrified in the day of battle because they have no experience with spiritual weapons of warfare. Saul had courage in his earlier days (1 Sam. 11:5-11; 14:47), when he was operating in the Spirit.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만 오직 이 거인만이 보였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17:24-25). 이 상황은 바로, 육신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에만 익숙하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영적 무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서 전쟁 날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다. 사울은 이전에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용맹한 자였다 (삼상 11:5-11; 14:47).

²⁴And all the men of Israel, when they saw the man, fled from him and were dreadfully afraid. ²⁵So the men of Israel said, "Have you seen this man who has come up? Surely he has come up to defy Israel; and it shall be that the man who kills him the king will enrich with great riches, will give him his daughter, and give his father's house exemption from taxes." (1 Sam. 17:24-25)

²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²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삼상 17:24-25)

1. Fear will be a main issue that dominates the human race in the end time (Lk. 21:26).

두려움은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눅 21:26)

²⁶Men's hearts failing them from fear and the expectation of things which are coming... (Lk. 21:26)

²⁶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 (눅 21:26)

2. The accuser's voice was heard through Goliath. Satan accuses us night and day (Rev. 12:10).

참소하는 자의 음성이 골리앗을 통해 전달되었다. 사단은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한다 (계 12:10).

¹⁰...for the accuser of our brethren, who accused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 has been cast down. (Rev. 12:10)

¹⁰ ...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 12:10)

- E. David was rebuked by his oldest brother Eliab who taunted him for only being over a "few sheep" (17:26-30).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이 “몇 안 되는 양들”을 돌보는 이라 놀리며, 또 그를 꾸짖었다 (17:26-30).

²⁶David spoke to the men who stood by him, saying, “What sha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this Philistine and takes away the reproach from Israel? Who is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that he should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²⁸Eliab his oldest brother heard when he spoke to the men; and Eliab’s anger was aroused against David, and he said, “Why did you come down here? And with whom have you left those few sheep in the wilderness? I know your pride and the insolence of your heart, for you have come down to see the battle.”²⁹And David said, “What have I done now? Is there not a cause?” (1 Sam. 17:26-29)

²⁶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 ²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 [한글 KJV: 몇 안 되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²⁹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삼상 17:26-29)

1. There will always be jealous people and leaders—some may even be in your family—who insult those who boldly stand against the enemies of Lord. Samuel thought to anoint Eliab, yet the Lord said “No!” Eliab, moved by jealousy, now concluded that David was proud.

질투심 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어느 때는 이것이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으며, 이들은 주님의 대적을 담대히 대항하는 이들을 모욕한다.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 붓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압은 질투심으로 불타는 가운데, 다윗이 교만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 Jesse had eight sons (16:10, 11); three of them joined Saul’s army (17:13), and five were still at home in Bethlehem, with David being the youngest son (17:14).

이새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다 (16:10, 11). 이들 중 세 명은 사울의 군대에 합류해 있었으며 (17:13), 제일 어린 다윗을 포함한 다섯 명은 베들레헴에 있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17:14).

- F. **Leadership Lesson:** All in leadership must endure insults and accusations—sometimes even from family members and the experienced soldiers of the day (v. 28).

리더십 강의: 모든 리더십들은 모욕과 참소를 견뎌야만 한다. 때로는 가족 중 한 명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경험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28 절).

- G. David’s answer was “*Is there not a cause that is worthy of extravagant commitment to God?*” He was asking if there was something worth paying a price to live differently in this generation.

다윗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하나님께 넘치는 헌신을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는 이 시대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값을 치르더라도 해야 할 합당한 일을 찾고 있었다.

- H. David asked Saul for permission to fight Goliath (17:31-37).

다윗은 사울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17:31-37).

³²David said to Saul, “Let no man’s heart fail because of him; your servant will go and fight with this Philistine.” ³³And Saul said to David, “You are not able to go against this Philistine to fight with him; for you are a youth...” ³⁴David said to Saul, “Your servant used to keep his father’s sheep, and when a lion or a bear came and took a lamb out of the flock, ³⁵I went out after it and struck it, and delivered the lamb from its mouth...I caught it by its beard, and struck and killed it. ³⁶Your servant has killed both lion and bear; and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will be like one of them, seeing he has defi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³⁷[the Lord] will deliver me from the hand of this Philistine.” Saul said to David, “Go, and the LORD be with you!” (1 Sam. 17:31-37)

³²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³³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 ³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³⁵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³⁶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³⁷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삼상 17:31-37)

1. David was mocked by Eliab (v. 28), Saul (v. 33), and later Goliath (v. 42-44). However, David lived by God’s view of him. Saul scoffed at the thought of a young person standing against the mightiest warrior that Israel had ever faced. In his opinion, David was unqualified.

다윗은 엘리압으로부터 (28 절), 사울로부터 (33 절), 그 후에는 골리앗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42-44 절).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봤다. 사울은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이 전에 겪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전사에게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비웃었다.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이 부적합한 사람이었다.

2.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n a crisis is, “What does God say about the crisis or the giant?” David saw Goliath through God’s eyes as one who defied the living God. David did not see Goliath as a threat to God’s purpose.

위기와 재난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위기, 혹은 거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으며, 그의 눈에는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목적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3. David answered Saul from his secret history in God—what he had experienced in his private life in God. David experienced God’s power in context to his mundane job among the sheep. God gives private victories over the “lion and bear” before He releases national victories.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지내왔던 경험으로부터 (다윗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근거로)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은 양을 돌보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승리를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사자와 곰”을 이기는 개인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

4. I think Saul remembered feeling the God’s presence when David sang over his oppression.

나는 사울이 자신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의 노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다고 생각한다.

I. David refused Saul's armor—we do not want to walk in another person's calling (17:38-39).

다윗은 사울의 갑옷 입기를 거절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17:38-39).

³⁸*Saul clothed David with his armor...³⁹ David...tried to walk, for he had not tested them. David said to Saul, "I cannot walk with these, for I have not tested them." So David took them off. (1 Sam. 17:38-39)*

³⁸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 ³⁹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삼상 17:38-39)

1. David had not tested Saul's armor—he had no experience with Saul's equipment. We must not go to war against the enemy relying on another's experience and calling. David took Saul's armor off and went forth in what had been proven in his own history in God.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전에 시험해보지 않았다. 그는 사울의 장비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다. 우리는 다른 이의 경험과 부르심에 기대서 대적을 향해 전쟁을 하러 나가서는 안 된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겪으면서 확증한 것들 안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2. Saul armed David with his armor thinking that David needed more of what Saul relied on. Saul's armor could not get the job done, so why would it be adequate for David? Do not go to war with "Saul's armor" and is made of the same material as the giant's armor.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면서, 다윗에게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울의 갑옷은 사울에게도 골리앗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되었는데, 다윗에게도 도움이 될 리가 없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전투로 나가지 말라.

3. Cultivating God's presence in our life today is essential to standing against unexpected giants tomorrow.

우리가 오늘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찾는 것은 내일 예기치 못한 거인들을 만나서게 될 때 필수적인 부분이다.

4. The prayer closet is a key aspect of the Holy Spirit's seminary. The prayer room is away from the crowds, like David in the fields of Bethlehem where he killed the lion and bear (v. 34).

기도의 처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에 있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도실은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고 거기서 사자와 곰을 죽인 것처럼, 군중들로부터 떨어진 곳이다 (34 절).

5. Professional titles, achievements, and degrees do not move angels and demons. The lifestyle of prayer with fasting is a statement of relying on God's strength.

전문직 직함이나 성과, 학위는 천사나 악한 영들을 움직이지 못한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¹⁵*The evil spirit answered and said, “Jesus I know, and Paul I know; but who are you?” (Acts 19:15)*

¹⁵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행 19:15)

IV. DAVID FOUGHT GOLIATH (1 SAM. 17:40-58)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다 (삼상 17:40-58)

A. David came to Goliath in the name of the Lord, knowing that the battle was the Lord’s (17:40-47).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으며,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있었다 (17:40-47).

⁴⁰...and he [David] chose for himself five smooth stones from the brook, and put them in a shepherd’s bag... and his sling was in his hand...⁴²When the Philistine looked about and saw David, he disdained him; for he was only a youth...⁴³The Philistine said to David, “Am I a dog, that you come to me with sticks?...⁴⁴I will give your flesh to the birds of the air...!”⁴⁵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a sword, with a spear, and with a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whom you have defied. ⁴⁶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 and I will...take your head from you...that all the earth may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⁴⁷Then all this assembly shall know that the LORD does not save with sword and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you into our hands.” (1 Sam. 17:40-47)

⁴⁰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 ⁴²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⁴³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 ⁴⁴ ...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⁴⁵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⁴⁶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⁴⁷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0-47)

1. Goliath trusted in his military might (v. 43), disdaining David, saying, “Am I a dog that you come against me with a stick?” You come as a kid with a slingshot? This insulted Goliath because David had no resources, no money, no titles, no position, but just a history in God.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력을 믿었으며 (43 절), 다윗을 업신여기며 말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너 같은 어린아이가 물맷돌을 들고 나오느냐? 이는 골리앗에게 모욕적이었는데, 이는 다윗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명예도, 위치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 David came in the name of the Lord or by invoking the power of God. The stone he slung at Goliath was guided by God’s invisible hands.

다윗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며 나아갔다. 그가 골리앗에게 던진 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림 받았다.

3. First David spoke a prophetic decree to the enemy based on God's word to him.

첫째로, 다윗은 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에게 예언적인 명령을 선포했다.

5. Previously Saul sought to talk David out of this battle (v. 33). Saul agreed with Goliath's view of David seeing David as unable to prevail because he was an unqualified youth.

방금 전 사울은 다윗을 설득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 했다 (33 절). 사울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시각에 동의했으며, 다윗이 자격이 없는 부족한 젊은이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6. David had victories that Saul did not know about. Private victory precedes public victory. After we slay the lion and the bear in private, we will be bolder in public.

다윗은 승리를 여러 번 맛 본적이 있고, 사울이 이를 알지 못했다. 대중 앞에서의 승리는 개인적인 자리에서의 승리 이후에 맛 볼 수 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사자와 곰을 죽인 이후에야, 우리는 대중 앞에서 더 담대해질 수 있다.

7. David understood that the Lord does not save with a sword, for the battle is the Lord's. Goliath came to David with a sword (human power), but David came in the Lord's name.

다윗은 이 전쟁이 주님의 전쟁이기에, 주님이 칼과 창을 통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골리앗은 창(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지만, 다윗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갔다.

⁶“*Not by [human]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Zech. 4:6)

⁶ ...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슌 4:6)

³For though we walk in the flesh, we do not war according to the flesh. ⁴For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carnal but mighty in God... (2 Cor. 10:3-4)

³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⁴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 하나님의 능력이라 ... (고후 10:3-4)

- B. David refused to settle down and accept things as they were. The Lord is calling young Davids to get prepared, take a stand, live differently, and believe for things to be different.

다윗은 이전부터 항상 그랬던 것들에 안주하거나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주님은 젊은 다윗들이 준비되며, 담대하게 서고, 구별되게 살며, 일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을 것을 부르신다.

- C. The Lord is looking for a few good men and women who will take a stand.

주님은 담대하게 설, 적은 수의 훌륭한 남녀들을 찾고 계신다.

- D. David killed Goliath, who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17:48-54).

다윗은 골리앗을 땅에 엎드러지게 했으며, 그를 죽였다 (17:48-54).

⁴⁸...David hurried and ran...to meet the Philistine. ⁴⁹Then David put his hand in his bag and took out a stone; and he slung it and struck the Philistine in his forehead, so that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and he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⁵¹David ran and stood over the Philistine, took his sword...and killed him, and cut off his head with it. When the Philistines saw that their champion was dead, they fled. ⁵²The men of Israel and Judah arose...and pursued the Philistines as far as...the gates of Ekron. The wounded of the Philistines fell along the road... even as far as Gath and Ekron...⁵⁴David took the head of the Philistine and brought it to Jerusalem...
(1 Sam. 17:48-54)

⁴⁸ ...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⁴⁹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 ⁵¹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⁵²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 ⁵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 (삼상 17:48-54)

- E. Saul inquired about David's family lineage (17:55-58). This question might have been in light of the promise Saul made that the man who killed Goliath could marry Saul's daughter (17:25).

사울은 다윗의 집안에 대해 물어봤다 (17:55-58). 이 질문은 아마도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17:25).

⁵⁵When Saul saw David going out against the Philistine, he said to Abner, the commander of the army, "Abner, whose son is this youth?" Abner said, "As your soul lives, O king, I do not know." ⁵⁶So the king said, "Inquire whose son this young man is." ⁵⁷Then, as David returned from the slaughter of the Philistine, Abner took him and brought him before Saul with the head of the Philistine in his hand. ⁵⁸And Saul said to him, "Whose son are you, young man?" So David answered, "I am the son of your servant Jesse the Bethlehemite." (1 Sam. 17:55-58)

⁵⁵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⁵⁶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⁵⁷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⁵⁸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라 (삼상 17:55-58)

1. Saul did not know who David's parents were. David had served in the royal court as Saul's armor bearer and court musician (16:18), but David here seems to be a stranger to Saul.

사울은 다윗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 맡은 자와 궁정 악사로 궁정에서 섬겼지만 (16:18), 여기서 다윗은 사울에게 낯 설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2. Saul probably never asked about David's testimony or family life since he had a distressed spirit which possibly left him with a bad memory and lack of focus when being tormented (16:15-23).

사울은 아마도 그를 떠난 악한 영에 의해 고통당할 때의 나쁜 기억과 집중력 저하로 다윗의 간증이나 가정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16:15-23).

F. Four categories of people in the conflict (from Reinhard Bonnke):

충돌, 대결이 일어날 때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라인하르트 본케)

1. Ex-anointed professional—Saul (a picture of leaders who lost the fire of the Spirit)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는 전문가 – 사울 (성령의 불을 잃어버린 리더십들)

2. Un-anointed professionals—Saul’s army (a picture of ministries without power)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 전문가 – 사울의 군대 (능력이 없는 사역들)

3. Anti-anointed—Goliath (a picture of the enemies of God’s people and purpose)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 –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목적의 대적)

4. Anointed non-professional—David (a picture of God’s anointed vessels).

기름 부음 받은 비전문가 –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V. THE PROPHETIC CALL TODAY TO PREPARE GOD’S DAVIDS

하나님의 다윗들을 준비할 것에 대한 오늘날의 예언적인 부르심

A. This account of Goliath is a prophetic picture of the end-time giant—the Antichrist. There will be an end-time crisis against Israel and the body of Christ by the Antichrist’s coalition of nations. God’s people will use seemingly inferior weapons against the “strongest powers” on earth.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때의 거인인 적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열방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에 맞서서 열등해 보이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²*Fo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Zech. 14:2)*

²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 (슌 14:2)

⁸*...the LORD will defe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one who is feeble among them in that day shall be like David...*⁹*I will seek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come against Jerusalem. (Zech. 12:8-9)*

⁸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⁹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슌 12:8-9)

²*I will also gather all nations...and I will enter into judgment with them there (Joel 3:2)*

²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 (욘 3:2)

- B. The LORD of hosts will defend them; they shall devour and subdue with “slingstones” (Zech. 9: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들은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로 그들을 복속시킬 것이다 (슌 9:15).

¹⁵*The LORD of hosts will defend them [Jerusalem]; they shall...subdue with slingstones...*
(Zech. 9:15)

¹⁵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 (슌 9:15)

- C. God will raise up His young Davids for the greatest showdown in history against the Antichrist. Goliath said that he would feed David to the birds (17:44), and David said this back to him (17:46). God will feed the Antichrist’s armies to the birds of the air at the Armageddon campaign.

하나님께서서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을 위해 자신의 젊은 다윗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골리앗은 다윗을 새 먹이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17:44).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동일한 말을 던졌다 (17:46). 하나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실 것이다.

¹⁷*Then I saw an angel....saying to all the birds that fly in the midst of heaven, “Come and gather together for the supper of the great God, ¹⁸that you may eat the flesh of kings... and the flesh of all people, free and slave, both small and great.” ¹⁹I saw the beast,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 who sat on the horse...* (Rev. 19:17-19)

¹⁷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¹⁸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¹⁹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 19:17-19)

- D. The defiance of the nations against the God of Israel throughout history will culminate in the end times (Ps. 2:1-3). God will defeat the nations who dare to oppose Him (Ps. 2:4-5).

열방들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것들은 마지막 때에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시 2:1-3).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항했던 열방을 물리치실 것이다 (시 2:4-5).

²*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 ³“Let us break their bonds in pieces and cast away their cords from us.” ⁴He who sits in the heavens shall laugh...⁵He shall speak to them in His wrath...* (Ps. 2:2-5)

²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³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 ⁵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 (시 2:2-5)